

대낮부터 술판... 김치축제야 막걸리축제야

광주 김치문화축제 행사장 가는곳 마다 '막걸리 파티'

현장학습 나온 초·중생도 있는데... '김치세계화' 무색

“여기요. 막걸리 두 병하고 맥주 한 병 추가요.”

“제21회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4일~8일) 사흘째인 6일 오후 1시10분께 광주 시 북구 매곡동 광주시립박물관 안 맛집 골목 A주막 부스 테이블에선 남성 관광객 4명이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이 테이블 바닥엔 빈 막걸리 세 통이 나뒹굴고 있었다.

이들 관광객 옆 테이블에선 또 다른 관광객 2명이 “여기 막걸리 두 병 추가요”라고 큰소리로 외쳐댔다. 때마침 A주막 앞길을 지나던 광주 모 어린이집 원생들이 이 모습을 신기한 듯 쳐다봤다.

맛집 골목 뒤편 정자엔 어르신들 10여

명이 바둑을 두면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정자 앞 뒤편 잔디밭에선 김치축제를 찾은 어르신들이 돛자리를 깔 뒤 미리 챙겨온 고기·김치 등을 꺼내놓고 맥주·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주말 7곳이 설치된 주변 부스 대부분에선 축제와는 사실상 무관한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현장학습을 나온 초·중학생들이 코끝을 찌르는 술 냄새 때문에 코를 막으면서 술만 벌인 모습을 뻔히 쳐다보는데도, 이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였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김치축제 직원들조차 이 광경을 보고도 전혀 말리지 않았다. 김치축제현장을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선 어르신들을 위한 술판인지 아니면 알맹이

빠진 김치축제인지 모르겠다는 푸념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김치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 문화축제로 광주시를 대표하는 축제이지만 차별화된 명품브랜드 개발과 김치축제 산업화 등 김치축제의 명분은 축소된 채 술기운에 취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날 현재 김치축제 현장에 설치된 46곳 부스 중 각 지역특산물장터 23곳을 제외하면 김치관련 부스는 16곳 뿐이다. 나머지 7곳은 주막이다.

이번 김치축제가 김치축제 산업화를 위한 장이리라 보다 술을 마시기 위한 축제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이유다.

또 주변엔 김치명인 콘테스트·김치아카데미·외국인 김치문화탐험 등 상설체험 행사장이 마련돼 있지만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한 이번 김치축제가 김장문화 유네스코 등재 1주년을 맞이한 점과 매년 평균 15억 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

안하면 대한민국 대표음식문화축제로는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김치축제 방문객 수는 39만 7488명으로 예산은 총 13억5000만 원이다. 반면 광주 도심 대표축제인 총장축제 예산은 13억5000만 원으로 방문객 수는 200만 명이다.

관광객 유모(32)씨는 “아이와 함께 왔는데, 특색 있는 체험보단 먹고 마시는 분위기였다”며 “어린 자녀에게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줬다. 괜히 온 것 같다”고 꾸짖었다.

이에 대해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주막 공간이 비좁다 보니, 주막을 찾은 관광객들이 잔디에서 싸운 음식 등을 먹기 시작하면서 소풍문화가 형성된 것 같다”며 “잔디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의경·대학생 '총장축제' 예행연습 '총역의 7080 총장축제' 개막식을 이틀 앞둔 6일 광주시 동구 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의경·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울랄라세션 팀'이 개막식 축하무대에서 선보일 춤을 연습하고 있다. '울랄라세션팀'은 총장축제 주제가인 '너랑 나랑'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미리 홍보한 뒤 축제기간(8일~12일) 동안 특설무대 등 9개 무대에서 플래시몹 형태로 시민들과 함께 총장댄스를 선보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운항 과실' 흉도 좌초 유람선 선장 영장

출항 전 안전점검 소홀한 해경 감사 없어 빈축

흉도 해상 유람선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운항 미숙 등 과실이 드러난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100명 이상의 탑승객이 승선하는데도 출항 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해경에 대한 감사나 자체 반성은 없어 빈축을 사고 있다.

목포해경은 6일 유람선 코스를 숙지하

지 않고 운항에 들어가 사고를 낸 신안선적 흉도바강호(171t) 선장 문모(59)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와 업무상 과실 지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문 선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10분께 신안군 흑산면 흉도 동쪽 110m 해상에서 승객 등 110명을 태우고 운항하던 중 주의를 게을리해 유람선을

암초에 부딪혀 좌초시키고 승객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와 지난달 16일 선장으로 첫 운항을 시작한 문 선장은 사고 지점 인근에 암초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정확한 좌표는 알지 못한 채 운항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암초 좌표 등 유람선 운항 코스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채 배를 몰다가 좌초시켰다는 것이다.

해경은 앞서 지난 3일 해당 유람선의 도입 당시 선박 안전을 점검한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와 유람선을 수리한 조선소, 구명벨 제작 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해경의 압수수색은 바강호 안전검사 과정과 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함께 사고 당시 구명벨 1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승객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해경은 사고 당시 배에 있었던 항해사, 기관장 등 선원 4명과 유람선 선사 대표에 대해서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입건할 방침이다.

/목포=김병만기자 dss6116@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2 해질 17:19
해짐 18:09 달짐 04:51

아침기온 뚝!
중국 산둥반도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았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11/24	보성	맑음	7/23
목포	맑음	12/22	순천	맑음	12/24
여수	맑음	15/22	영광	맑음	9/23
나주	맑음	8/25	진도	맑음	11/23
완도	맑음	12/23	전주	맑음	9/24
구례	맑음	7/24	군산	맑음	11/22
강진	맑음	9/24	남원	맑음	7/23
해남	맑음	9/24	축산도	맑음	16/20
장성	맑음	8/24			

◇바다 날씨

		오전		오후
	방향	파고(m)	방향	파고(m)
서해	안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
남해	안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안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
서부	안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0.5~1.5

◇생활지수

식중독	46
운동	70
빨래	9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6:14	00:48
	18:32	13:10
여수	08:00	01:46
	20:26	14:00

◇주간 날씨

8(수)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	☀	☀	☀	☀	☀	☀
12/25	13/26	14/27	15/27	14/26	15/25	14/24

“한빛원전 외부 전력차단은 직원 실수”

최근 한빛원전 1·2호기의 외부 전원 공급이 차단된 것은 용역업체 직원의 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빛원전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에 따르면 최근 한빛 1·2호기 외부 전원 공급이 차단된 것은 계획 예방 정비 중이었던 직원의 실수로 드러났다.

킨스 조사결과, 해당 직원은 한빛 2호기의 고압배전반을 실패로 교체하고 테스트하던 중 관련 없는 회로에 전기 단자를 꽂으면서 저전압신호가 발생했고 결국 외부 전력 공급이 차단됐다.

외부 전력 공급이 차단되자 한빛 1·2호기는 지난 1일 오후 1시 57분께 비상 디젤발전기가 한때 가동됐다가 이후 정상 복구됐다. 비상 디젤발전기는 외부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발전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안전 설비다.

한빛원전 민간환경 감시기구 관계자는 “당시 비상발전기마저 작동되지 않았더라면 원전 전체에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장치마저 가동이 중지돼 큰 위험이 되는 만큼 이를 가깝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못믿을 경찰관...성범죄 징계자 3년간 다시 늘어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 처분된 경찰관은 2012년 4명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13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6명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2010년 11명에서 2011년 9명에 이어 2012년 4명으로 줄었지만 최근 3년간 다시 늘어

난 것이다.

2010년 이후 4년 8개월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43명(성추행 39명, 성폭행 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건 관계자나 주변 인물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은 6명,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찰관은 4명이었다.

동료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추행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6명에 달했다. 43명 중 26명(60%)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17명은 견책이나 정직 등 경징계 처분됐다. /연합뉴스

비엔날레공원에서 누리는 분양같은 임대아파트

용봉동 도나우타운

전용면적 59㎡ 228세대

전 세대 남향배치

- 입주 전 베이커리실시
- 전세대 화장형
- 주방·욕실 천장에 매립형 환풍시스템 설치
- 건식 욕실, 환풍기 타이머스위치 설치
- 1층 필로티 구조
- 전세대 LED조명 설치
- 애완견 등 화상실 전용 출입문 설치
- 안방 불박이장 설치
- 출·오토시스템
- 주출입구 차량통제 시스템

문의062 264-7789

10월 17일 OPEN